

*新春特輯 / '83年 各界의 새해 設計를 들어본다.

'83年度 事業設計 및 推進課題

83年은 電子工業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난해에 우리 業界가 겪었던 시련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상기해 볼때 今年에는 새로운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는 해인 것이다.

아직 山積해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業界 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혼신을 다해서 뚫고 나가야 할 것이다.

本誌는 新年을 맞아 電子工業 관련의 各界에 새해 設計와 抱負를 新春特輯을 통해서 그 의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原稿는 기관명 가나다順〉

〈編輯者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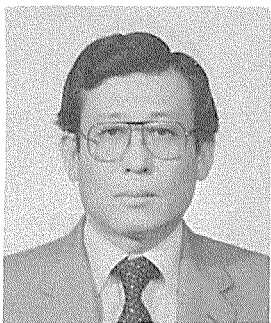
第二의 經濟跳躍 意志實現을 위하여

鄭 在 恩
三星電子 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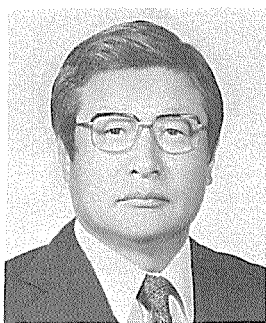
多事多難했던 壬戌年 한 해를刻苦의 노력과 민첩한 기지로써 극복하고 이제 활기찬 도약과 飛翔의 設計를 펼칠 癸亥年 새 해를 業界 여러 분과 함께 맞게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기적인 불황의 여파로 인한 진통이 채 해소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난 한 해는 우리 電子業界에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다 하겠습니다. 先進國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先進電子工業國의 끊임없는 견제 및 後發 電子工業國의 도전, 여기에 海外 電子市場의 전반적인 불황 등 갖가지 與件 變化로 말미암아 우리가 헤쳐야 될 난관은 겹겹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不況 속에서의 好況을 위한 부단없는 지혜와 노력으로 숨가쁘게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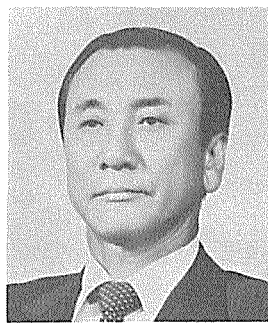
하는 國內外 經濟與件 속에서도 機敏한 對應 태세를 갖추고 量的 膨脹의 高成長 時代에서 質的 向上의 低成長, 安定의 時代로 향한 企業體質을 再整備 強化시킬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所産으로서 많은 普及型 電子製品 開發에 의해 國民經濟에 寄與함은 물론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킬 수 있었으며 컴퓨터, 半導體 등의 尖端技術의 蓄積 등을 통해 既存의 勞動集約的인 家庭用機器 爲主의 成長에서 脫皮, 技術集約的인 産業用機器로 發展基盤을 構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電子立國의 雄志는 비단 우리 業界의 共同課題일 뿐만 아니라 國家的인 課題로서 第二의 經濟跳躍의 先頭役割을 擔當해야 될 우리로서는 韓國經濟의 先導者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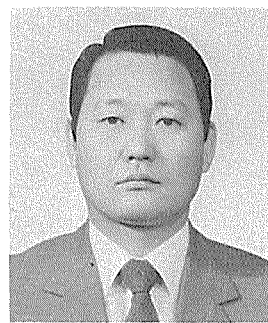
鄭 在恩 社長



許 愼九 社長



尹 子重 社長



柳 鍾烈 理事長

금지와 民族活路 開拓을 위한 使命意識을 확고히 하여 다음과 같은 姿勢로 꾸준히 精進하겠습니다.

첫째 共存共榮의 기틀을 確立해야 되겠습니다.

多様な 企業環境의 變數 가운데에서도 最一線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協力業體 즉 部品製造業體와 代理店과의 連帶意識을 高취하여 이들과 三位一體의 立場에서 상호협동의 기틀을 確立해야 될 뿐만 아니라,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완수라는 次元에서 消費者에 대한 사명감과 道理를 다하여 궁극적으로는 國家經濟와 國民福祉 向上에 寄與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販賣部門, 購買部門 등의 모든 去來에 있어서 公正去來 秩序를 確立하고 모든 不正과 不條理 不公正 行爲를 根切하여 나감으로써 社會淨化에 의한 正義社會 俱現에 우리 電子業界가 앞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技術開發投資를 強化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는 우리 電子技術이 지속적인 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先進技術에 대한 積極적이고도 創意的인 개발 없이는 더이상 이러한 成長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先進國과의 技術的인 艱을 조속히 단축시키기 위한 革新的인 投資를 단행하여 技術集約的인 高附加價値 部門인 産業用機器에 대한 技術開發에 全力함이 急先務라 하겠습니다. 컴퓨터, 半導體 등의 先進技術開發을 위해 무엇보다도 研究開發 人力의 積極적인 양성 및 확보

技術情報體制의 확립과 研究所 機能의 대폭적인 擴大 등을 통해 研究開發部門을 효율적으로 運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販賣力을 強化해야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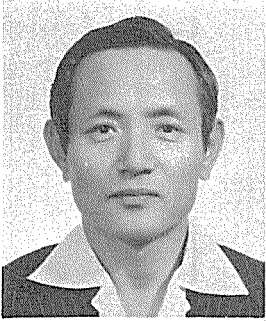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信用販賣會社 등의 早期定着 등을 통하여 消費者가 편리하고 값싸게 製品을 構入할 수 있는 流通體制가 確立되어야 할 것입니다.

信用販賣制度의 定着이야말로 信用社會의 章을 펴는 획기적인 流通革命으로서 이는 販賣力 強化를 위한 우리의 意志의 所産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先進電子工業國의 保護壁은 점차 두터워지고 後發國의 自國化現象은 점차 高潮되어 熾烈한 激戰場과 다름없는 海外市場에서, 輸出立國의 國家的 意志 達成을 위해서는 그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海外 아프터서비스 體制를 強化하여 韓國製品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海外 生産法人 및 販賣法人 設立을 擴大 實現하여 技術輸出과 플랜트輸出 등의 構造上의 改編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企業戰略의 支援을 위한 金融國際化 및 國際的인 전문 세일즈엔지니어, 經營人의 養成에 拍車를 가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財務構造의 堅實化에 의한 企業體質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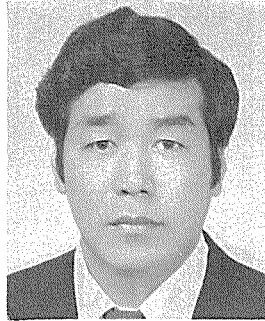
賣出債權, 買入債務의 합리적인 管理와 收入支出의 均衡維持 및 投資의 효율적 運用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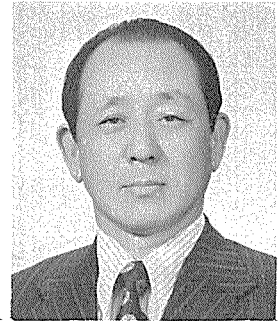
白 英鶴 所長 /



조 정완 회장



徐 壯源 3室長



高 明哲 理事長

黑字經營에 진력해야 되겠습니다.

第二의 經濟跳躍 實現을 위한 우리의 意志와 勞力은 그 어느 때보다도 確固합니다. 어려운 經濟與件과 先進技術의 落後性을 뛰어넘어 國際舞臺에서 先進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電子立國을 實現하기 위한 政府의 積極적인 支援과 技術革新을 이룩하기 위한 企業의 끊임 없는 勞力이 있어야 하겠으며, 信用販賣會社 設

立을 통한 流通體制의 확립과 積極적인 海外進出에 의한 輸出伸張 등 政府와 企業이 電子工業의 나아갈 方向을 뚜렷이 定立하고 그 위에 企業 자체의 노력과 政府의 行政的인 支援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83년에는 우리의 電子工業이 第二의 經濟跳躍의 契機를 다시 한번 맞게 될 것을 確信합니다.

和合과 협력의 同伴者 競爭時代

許 慎 九

金星社 社長

國內外的 어려움속에서도 內實을 다질 수 있었던 지난 壬戌年을 뒤로하고 새로운 希望과 設計를 가질 수 있는 癸亥年을 맞아 業界여러분과 함께 지난 1年을 돌아보고 새로운 汗해를 計劃하고 抱負를 밝히는 일은 매우 반갑고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돌이켜보면 지난 壬戌年은 83年 以後의 未來를 對備한 우리 業界의 努力이 集中的으로 投入된 해였다고 하겠다.

우선 技術開發에서 많은 成果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產業構造의 高度化도 그 기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특히 海外市場에서 從前까지의 “國內生産→海外販賣”에서 “海外生産→海外販賣”의 새로운 次元의 마케팅 基盤의 造成等 새로운 轉換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하나 하나 그 例를 다 들 수는 없겠지만 가령 컴퓨터·半導體分野의 事業을 本格化한 業體가 많았든가, 韓國光通信(株)·韓國데이터通信(株) 등의 設立과 業務開始로 電子産業이 名實共히 情報社會의 主役으로 뿌리내리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우리 電子業界의 轉換期를 豫告하는 한해였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電子製品 하면 으레히 TV나 冷蔵庫를 연상하던 過去의 認識은 이제 서서히 바뀌어 컴퓨터·半導體로 認識이 달라지고 있으며, 電子製品이 單純한 生活의 便宜性만을 改善하는 것이 아니라 情報傳達의 媒體로서 事務所·工場은 물론 家庭에까지 깊숙히 파고들어 社會 全盤의 變革을 主導하는 時代를 豫告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金星社도 지난해에는 이러한 轉換過程에 主導的인 役割을 遂行했다고 하겠으며, 거기에서 새로운 跳躍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나름대로 成功的이었다고 評價하고 싶다.

예를 들면 컴퓨터事業을 本格化하면서 자체 開發한 마이크로 컴퓨터에서부터 技術도입에 의해 生産하는 大型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그 領域을 廣範圍하게 擴大시켰으며, 또한 컴퓨터事業과 關聯이 큰 OA事業의 效率의인 推進을 爲해 컴퓨터터미널에서부터 電子式타이프라이터에 이르기까지 各各의 製品에 對한 量産體制를 갖추었다.

물론 이들 컴퓨터와 OA事業에 있어 뒷받침이 되는 研究開發에 많은 資源을 投入해야 했음은 당연한 結果였다.

當初 研究開發投資를 最小限 賣出額의 3% 이상 한다는 計劃을 樹立, 이를 執行하므로써 종래보다 劃期的으로 늘어난 規模가 投入되었다.

또한 家庭用分野에 있어서도 節電型·低價格型에서 8時間 VTR, 音聲多色 컬러T.V, 音聲 認識 컬러T.V 등 高級機種에 이르기까지 製品의 多樣性을 추구하여 消費者 欲求에 적절히 副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國內外 景氣에 全般的인 回復이 없으므로 해서 消費需要에 커다란 變化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輸出價格의 下落이 가져온 나쁜 結果에 많은 企業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새해 들어서도 不透明한 海外景氣의 變數가 國內景氣에 미치는 影響이 클것으

로 豫想되어 지난해보다 나아질거라는 막연한 希望뿐이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가지의 覺悟와 計劃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本人은 우리 業界가 83年度에 추구해야할 課題는 우리 製品의 競争力을 國際化시키는 일로 보고있다. 그래서 本人과 金星社는 이에 積極對處해 나가기 爲한 여러가지의 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지난해에 美國에서 컬러TV 現地工場을 設立하여 生産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海外에서의 새로운 마케팅의 活動基盤의 시작이지만 그 成敗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海外, 특히 美國地域에서의 마케팅을 보다 強化된 體系로 構築하는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海外市場의 어려움은 지난해보다 多少 덜해질 것이라는 展望이 있긴하나, 今年에도 持續的인 努力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競争力을 強化하기 爲하여는 모든面에서 國際水準化 된 經營能力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技術開發力은 가장 뒤진 部分의 하나로서 차근차근 그 힘을 蓄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싼 賃金을 바탕으로 한 勞動集約的인 構造에서의 價格競争이 아니라, 技術開發을 통한 生産性向上과 原價節減이 무엇보다 絶실히 要求되는 時期가 되었기 때문이다. 技術開發을 통한 競争力의 強化가 先進國의 強點이라면 우리도 이에 相應하는 컴퓨터를 利用한 設計技術의 向上, 컴퓨터를 통한 生産工程의 合理化, 로봇을 利用한 設備의 省力化와 自動化는 물론 半導體技術의 蓄積 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올해에는 기필코 그 기틀을 마련할 計劃이다.

또한 急變하는 政세에 對應하기 爲한 國際的인 眼目을 갖춘 인재를 발굴·養成하므로써 經營管理 측면에서도 國際化를 도모할 생각이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金星社만의 課題는 아닐 것이며, 이의 效果의인 추진도 한 業體의 努力만으로 쉽게 達成될 성질도 아니라고 하겠다.

*新春特輯 / '83年 各界의 새해 設計를 들어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83年은 우리 業界에 보다 融合되는 協助 분위기가 成熟되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國內의 特定分野에서의 競爭에 쏟는 힘을 가급적 줄여 나갈 수 있을때 밖으로 向하는 힘의 발산은 보다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이 시작되는 癸亥年도 우리 업계에 있어 發展이 계속되는 한해이기를 기대하며, 우리 金星社와 여러분의 새해 抱負와 設計가 結實을 맺기를 祈願한다.

KOTRA의 새해 事業

尹 子 重
大韓貿易振興公社 社長

돌이켜 보면 지난 '82년 한 해는 國際的인 低成長, 高失業, 對外負債 累增이라는 三重苦 속에서 世界經濟의 自生的 回復 可能性마저 그 展望이 어두운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長期的인 景氣沈滯로 인한 各國의 事情은 크게 好轉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國際貿易 環境은 如前히 어려우리라 豫想됩니다. 一見해도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는 過去 1930年代 水準으로 그 벽이 두터워지고 있으며 開途國 間의 競爭도 어느 때 보다 치열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國內的으로는 多幸히도 지난 한해 한 자리 숫자의 안정된 物價를 바탕으로 政府와 業界가 一致團結하여 비록 當初 輸出目標에는 未達하였지만 餘他 競爭國에 비해 높은 伸張을 이룩하였습니다.

저희 KOTRA로서도 지난 한해는 80年代의 環境變化에 보다 效果의으로 對應키 위해 부심 努力했던 한 해로서 서울 國際貿易博覽會 開催도 이런 努力의 하나로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KOTRA는 본래의 주어진 使命에 充實하는 한편 變化무쌍한 國際貿易 環境에 能

動的으로 對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KOTRA의 새해 設計를 紹介하고자 합니다.

첫째, 海外 貿易情報의 蒐集機能을 補強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調査 重點貿易館의 人力을 1~2名씩 增員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貿易館과 本社間의 迅速한 情報傳達 體制를 強化하기 위해 런던 및 뉴욕貿易館과 本社와 의 專用 텔렉스線을 設置하여 自動中繼方式에 의한 多量情報送受信을 可能케 할 計劃입니다.

또한 貿易情報의 電算서비스를 위하여 82年 末 IBM 電算機를 도입 設置하였고 이에따른 電算化 計劃도 今年中 主力事業으로 推進하여 下半年中에는 國際入札 海外輸出入 問議等 商機會 情報에 對해서 電算서비스를 本格 實施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생각입니다. 特히 海外貿易館이 蒐集해온 輸出入 問議情報은 이미 入力中에 있는 國內業體 實態調査 資料에 依해 國內 適格業體를 自動檢索하고, 아울러 AUTO-M-MAILING SYSTEM에 依해 迅速한 對業界 傳達를 可能케 함으로써 劃期的인 去來幹施 業務의 改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國內業體의 海外바이어 情報問議에 效率的으

로 부응할 수 있도록 今年中 海外貿易館의 調査資料를 바탕으로 한 海外 主要地域別 品目別 바이어리스트 約 7 만개를 電算入力하여, 下半期中에는 實需要業體의 問議接受 즉시 RETRIEVAL SERVICE를 實施할 方針입니다.

또한 KOTRA本社에서의 貿易情報 分析 加工 活動도 業界의 Needs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보다 實用的인 情報서비스에 注力하겠으며, 先進各國의 輸入規制와 技術保護 動向, 資料保有國의 資源保護 動向 等 主要 關心情報는 入手되는 즉시 KOTRA-D1와 日州海外市場으로 業界에 안내하는 한편, 關心業界에 對해서는 說明會를 通해 集中 서비스를 實施, 業界의 迅速한 適應을 誘導할 計劃입니다.

둘째로 날로 경색되고 있는 海外市場 環境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나아가 積極的인 業界의 企業 輸出支援業務를 統合 實施함으로써 實質的인 支援에 力點을 두겠습니다.

貿易館은 中小企業의 輸出市場 開拓에 努力과 時間을 大幅 할애토록 하여 有望 輸出商品의 開發과 中小企業의 交易 파트너 發掘에 注力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輸出여건상 中小企業의 主市場이 아직은 先進諸國인 점을 감안 主要先進國 駐在 貿易館이 中小企業 輸出 Share 提高 活動에 特別 努力할 수 있도록 特別 去來幹族 活動, 部品 購買 調查團의 誘致 交涉, 新規 購買先의 發掘 等 中小企業製品의 MARKETING 活動을 大幅 擴充토록 하는 한편 中小企業型 小規模 플랜트를 주축으로 한 아프리카, 中南美 等 未開拓市場 進出 活動도 同地域 駐在 貿易館의 戰略的 進出事業으로 PROJECT化하여 重點 進出할 方針이며 이러한 中小企業支援活動은 中小企業 有關機關과의 效率的인 業務協調에 의한 市場 調查團 또는 販買促進團의 派遣, 小額受注 인과 바이어의 連繫, 展示會 參加추천 및 海外弘報 周施 等 中小企業의 輸出 基盤 低邊擴大와 市場 進出支援에 걸쳐 協調 領域을 廣域化할 計劃입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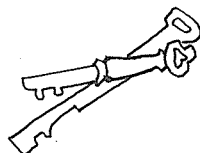
한가지 첨기하고 싶은 것은 政府의 部品 및 素材産業 育成政策과 발맞추어 部品産業의 內需 基盤 진작과 輸出促進을 위하여 '83年度中 構想 中에 있는 一聯의 事業으로 輸入代替可能 部品 現況 調査를 기초로 輸入部品 및 國產部品の 比較展示會를 開催, 業界의 輸入代替와 內需擴大를 동시에 도모하는 한편, 海外의 部品市場에 우리나라 業界가 積極的으로 進出할 수 있도록 海外有名메이커 部品販買展 및 有名메이커部品 購買調查團을 擴大 誘致하여 國產部品の 開發과 海外 供給機會를 擴充함으로써 事業間 連繫推進을 通한 成果거양에 注力토록 할 計劃입니다.

한편 海外에서의 國產品 宣傳 및 市場開拓을 爲하여 '83年中 總 54회의 國際博覽會 및 展示會에 參加할 豫定입니다.

이상 今年度中 KOTRA運營 設計에 對해 몇 가지 적어보았으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業界와 KOTRA의 有機的인 協調體制라고 생각합니다. 貿易에 關한 對外進出協力파트너로서, 相談Consultant로서 KOTRA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특히 今年은 작년의 서울國博을 다녀간 海外各國 바이어들과의 具體的인 去來가 本格化될 것임을 감안, 指續的인 商談 推進에도 KOTRA와 業界가 共同의 努力을 경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業界 特別 中小業界가 KOTRA 海外貿易館을 自社의 支社처럼 活用할 때 今年 한 해는 第二 道약을 향한 巨步를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임을 確信하며 業界 여러분의 권투와 분발에 전코트라 任職員이 同參함으로써 國家經濟와 여러분의 企業이 크게 發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기서 끝맺고자 합니다.



1983年度 中小企業振興 事業의 推進方向

柳 鍾 烈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長

1. 序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은 전체 鉅工業數의 96.6%, 從業員數(雇傭)의 49.4%를 占하는 등 우리 產業構造의 底辺을 形成하고 있으며, 그 棧能에 있어서도 國民經濟의 安定帶로서 經濟與件 變化에 迅速性있게 適應할 수 있는 活力 있는 多數로서의 經濟的 役割은 물론 中産層 形成의 主要因子로서 社會安定에 크게 寄與하는 등 막중한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그러나 過去 高度經濟成長 過程에서 中小企業은 生産이나 技術面에서 大企業에 비해 相對的으로 그 地位가 下向하는 趨勢를 면치 못하여 大企業과의 成長隔差深化는 中小企業 자체의 存立 基盤安定을 威脅함은 물론 우리 產業의 對外 競爭力을 크게 취약케 하는 등 많은 問題點을 야기시키고 있어 政府나 支援棧関 그리고 中小企業者 모두가 새로운 觀點에서 中小企業 問題를 다루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작년 4月 中小企業振光에 関한 長期展望을 提示하고 劃期的인 育成意志를 담은 中小企業振興長期計劃을 確定하고 이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國會에서는 中小企業關係 5個法律을 補完하였다.

다음에서는 '83年中에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 推進하고자 하는 事業에 對한 方向을 紹介하고자 한다.

2. '83年 中小企業振興公團 事業의 方向과 內容

中小企業振興公團은 政府가 確定 公表하는 中

小企業 育成施策을 實踐的으로 遂行하는 棧関으로서 '83年 施策方向인 ①高度化 基盤의 構築 ②企業體質의 革新 ③安定的 事業活動의 助長 ④支援體制의 確立 ⑤特別對策의 講究 등 施策의 基本情神을 俱現하기 위한 여러가지 事業을 推進할 計劃이다. 따라서 '83年度 事業推進의 目標를 中小企業의 成長 基盤構築에 두고,

○中小企業 近代化事業의 擴大推進.

○中小企業 協同化事業의 定着.

○指導의 質的 向上-現場 中心의 深層指導.

○研修事業의 擴充.

○事業轉換 促進事業·創業造成, 系列化受給 企業育成 및 輸入代替 部品工業 育成 등 新分野 事業의 發掘 支援에도 힘쓰는 등 위와 같은 方針에서 모든 事業을 推進해 나갈 것이다.

특히 今年度에는 中小企業振興 事業을 效率的으로 펴나가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點에 力點을 두게 될 것이다

첫째,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줄 작정이다. 다시 말해서 中小企業者 本人의 하겠다는 意慾이 있고 受容態勢가 되어있는 業體를 發掘해서 支援함으로써 조금만 도와 주어도 成長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近代化·協同化事業의 實施 結果는 構造 高度化의 先導的 그룹形成, 產業의 前後方 關聯 効果 등 波反 效果를 우리 產業에 깊숙히 미치도록 할 計劃이다. 앞에서도 간단히 言反하였지만 中小企業의 成長없이는 繼統的인 經濟成長을 期待할 수 없음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中小企業

이 産業의 底辺을 더욱 튼튼히 하고 大企業과의 理想的인 生産의 補完關係를 가지기 爲해서는 中小企業의 近代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個個 中小企業이 生産하는 製品의 品質 性能·生産費 등 모든 面에서 一定水準에 到達하여 對外競爭力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一連의 活動을 計劃的으로 推進하도록 啓導하여 資金支援·指導·研修·情報提供 등 各種 支援을 集中할 작정이다. 한편 規模面에서 零細하고 資金·經營 등 모든 面에서 脆弱한 多數의 中小企業이 힘을 모아 共同으로 近代化를 圖謀하고자 하는 共同利用施設事業, 共同工場建設 運營, 工業團地의 造成, 集團移轉, 아파트型 工場의 建設運營 등 協同化事業을 적극 誘導하고 集中 支援을 쏟을 것이다. 이러한 協同化事業은 이웃 日本이 2次大戰後 오늘과 같은 經濟大國으로 成長함에 있어 커다란 밑바탕이 되었음이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우리 나라 中小企業도 이제는 必然的으로 共同의 努力에 의한 原價節減·生産性向上을 꾀하지 아니할 수 없는 狀況에 處하였다고 보며, 이는 지난 4年間 推進하여 成切을 거두고 있는 協同化事業場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따라서 近代化·協同化事業이 커다란 成果를 거두어 우리 産業의 底辺을 튼튼히 할 때 우리 經濟의 第2의 跳躍은 確實히 實現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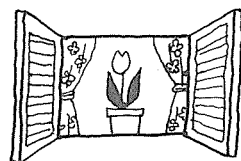
셋째, 中小企業者에 대한 指導·研修의 質의 向上에 힘쓸 計劃이다. 生産現場에서 必要로 하는 經營·技術指導는 물론 國內技術人力으로는 解決하기 어려운 分野에 대하여는 外國人專門家를 招請하여 指導할 것이다. 한편 작년 10월에 開院한 中小企業研修院에서는 多樣한 課程으로 中小企業의 最高經營者와 從業員에 대한 研修를 實施하며 研修方法도 講議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視聽覺·分任討議·세미나·매니지먼트게임 등 다이내믹하게 運營함은 물론 中小企業 從事者에게 알맞게 開發된 教材와 講師陣을 活用하여 內實있는 研修가 되도록 努力하며, 특히 中小企業者의 意識構造를 바꾸어 나가는 데 力點

을 둘 작정이다.

넷째, 中小企業振興公團은 中小企業者에 대한 綜合病院과 같은 役割을 하도록 하고 振興公團의 全任職員은 家庭醫와 같은 姿勢로 中小企業者의 어려운 點을 해결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中小企業者의 여러가지 苦衷을 中小企業振興公團은 中小企業者와 함께 研究努力하여 解決하도록 最善을 다하고 自體의 努力으로 解決할 수 없는 事項은 金融棧関·投資棧関과 緊密히 協調하여 解決하도록 하고 특히 有閑棧関과의 네트워크 體制를 確立함으로써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이 有棧的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中小企業의 國際化 추세에 따라 海外市場情報의 入手·合作 投資의 斡旋·海外進出 支援을 위하여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海外事務所를 최대한 活用하여 外國棧関과의 協力關係도 緊密히 維持되도록 함과 아울러 大韓貿易振興公社의 協調를 얻어서 中小企業의 國際協力 業務를 支援할 計劃이다.

3. 맺음말

앞에서 中小企業振興公團이 '83年中에 推進할 事業의 主要內容과 方向을 紹介하였다. 이러한 計劃은 目的하는 바와 같이 效率的으로 推進되어 그 效果가 聯関된 모든 分野에 미칠 때 事業의 計劃과 執行에 參與된 意味가 있는 것이다. 中小企業振興公團은 작년말 内部的으로는 組織을 事業推進에 부합하도록 一部 調整하는 등 諸般 措置를 講究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基盤 위에서 今年度 中에 計劃한 事業이 모두 소기의 成果를 거두어 國民經濟 發展에 寄與할 것을 期待한다.



技術開發 조기성취를 위한 技術支援의 時點

白 英 鶴
韓國電氣通信研究所 所長

새해를 맞이하여 韓國電子工業振興會와 會員社 여러분의 무궁한 發展을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國內外的 모든 分野에서 많은 難題에 부딪치면서도 온 國民과 政府의 굳은 意志와 努力으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해였습니다.

韓國電氣通信研究所도 統合된 研究所로의 功격이 完成되어, 電氣事業分野는 昌原에 重電氣試驗研究에 한층 박차를 가할 基盤이 構築되었으며, 通信事業分野도 大德研究 団地內에 研究所 建物を 完工하고 今年 2月 移轉을 위해 準備중에 있습니다.

2000年代의 情報社會를 이룩하고 이를 앞당기기 위해 中樞的 역할을 담당할 電氣通信의 任務는 실로 막중하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當 研究所에 부여된 임무와 기능을 바로 인식하고 各者에게 맡겨진 任務와 役割을 성실히 수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當 研究所의 '83年度 主要事業을 類型別로 分類하면 韓國電氣通信公社의 運營을 위하여 당면한 諸般 技術支援事業, 電氣·通信分野의 長短期 研究開發事業, 試驗·檢定事業 그리고 企業에 對한 技術支援 및 指導事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事業들의 主要 推進方針 및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時分割電子交換棧 國産化 開發事業

本 事業은 '78~'86년에 이르는 繼續事業으로

서 급속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크게 增加한 電話通信網의 수요에 맞는 供給을 위하여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空間分割方式의 電子交換棧 1, 2棧種의 技術導入 및 生産普及 擴大와 병행하여, 우리 實情에 맞는 韓國型 電子交換棧 開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外國技術의 의존에서 自主的 技術開發로 도약하려는 政府의 意志가 반영된 것이며, 이를 조기에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先進技術을 導入 吸收함은 물론 當 研究所, 韓國電氣通信公社 및 企業界의 參與에 적극적으로 推進될 것입니다.

특히, 技術을 外國에서 導入할 경우 一般的으로 高度技術을 제공해 주지 않으며, 設計가 先進國 技術에 맞도록 되고 市場에 대한 獨立的 活動이 불가능하여 技術的 내지는 事業的 측면에서 獨立性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棧種을 우리의 主導下에 開發, 國産化하여 業體의 獨立的 事業活動을 可能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國內 通信網의 運營을 外國技術의 依存으로부터 完全히 벗어날 必要性이 절실한 것입니다. 市場

當 研究所는 國內 開發에 成功한 3次 試驗棧(TDX-1)를 '82年 6月 경기도 松田에 設置 運用하고 있으며, '83년에는 生産社 試驗生産 支援, 規格化, 大型棧 設計製作과 아울러 教育訓練 및 品質管理 體系를 確立할 計劃입니다.

2. 光通信시스템 開發事業

앞으로 情報의 大量化 및 Digital化 추세에 힘

입어, PCM方式에 의한 大量情報傳送 Media, 즉 光섬유 Cable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獨自인 回線網을 구성하고 있는 電話網, Olympic網, Data網, 방송通信網 등 복합전송의 必要性은 큰 것입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한 光通信시스템開發事業은 '79~'86년에 걸친 繼續 事業으로서, 지난해까지 光化門↔安養電話局(12 km) 등 光通信시스템 商用化試驗 및 運用을 遂行하였으며, 45Mb/S 光通信시스템開發, 光Cable 접속장치개발, OTDR 측정장치 開發 등을 完了, 業체에 技術을 移讓하였습니다.

今年에는 지금까지의 技術을 바탕으로 長波長 光通信시스템 開發 및 측정研究에 주력하여 '86年 아세안게임과, '88年 Olympic 게임의 방송通信網 構成을 支援코져 합니다.

3. 情報通信시스템 開發 및 示範事業

統合通信網(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을 보다 効率的으로 조기에 實現시키기 위하여 LAN (Local Area Network) 시스템開發 및 商用化, ISDN 시스템 開發 및 商用化研究을 수행하며, 아울러 Teletex 터미널 開發 및 實用化, 한글 Word-Processing 방식 研究 및 장치개발, Videotex 시스템의 國內 實用化方案 樹立도 推進할 것입니다.

4. 中長期 綜合通信網 計劃事業

未來 情報社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電話적체를 해소하고 새로운 서비스 大量으로 發生하는 情報의 處理 技術集約인 知的 通信網의 構築 등 國家經濟 및 技術開發의 차원과 通信事業 發展의 加速化 측면에서 2,000年代의 Vision이 담긴 유연성있는 通信網 구축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本 事業에서는 2,000年代 長期 Vision을 제시하고, 通信 수요예측, 通信網 및 建設供給 計劃, 데이터通信 長期計劃 등을 수립하여, 向後 經濟

開發 五個年計劃의 通信部門 基本指針으로 利用될 것이며, 2,000年代 한국의 通信發展을 爲한 方向을 제시할 計劃입니다.

5. 電氣研究 開發事業

電力消費 增加와 더불어 송전 전압격상에 對備한 研究事業으로서 800KV 級 超高压 電力系統 研究, 送配電設備의 現代化研究, Digital 電力 量計 開發, 高電圧測定技術의 体系化, 送配電金 具類의 RIV, Corona分析 및 경감對策 등의 研究를 수행할 것입니다.

6. 通信 運用技術 支援事業

通信部 및 韓國電氣通信公社의 事業을 支援하고 나아가서는 그 經營의 合理化를 이룩하는 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運用技術開發 및 支援事業으로서, 加入電話 需要調査, 大都市 傳送網計劃, 設計技術 支援計劃 등 電話網 計劃 및 設計技術 支援事業과 加入電話管理 電算化, 物資管理 電算化, 最高經營者 經營情報處理시스템 開發, 通信事業의 責任經營體制 確立方案 등 經營改善 支援事業 그리고 市外 ESS, M10CN, No1A ESS, 設置 및 運用技術支援, M10CNES S, No1A ESS 機資材 國産化支援, ESS S/W 技術管理시스템 등 新技術 導入 및 運用技術 支援事業, 技術文獻 管理 및 국역편찬, 通信技術 動向調査分析, 通信技術 用語 標準化 등 技術情報 事業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研究所는 研究所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國內外 教育訓練 및 次上位學位 取得을 더욱 支援하고, 住居施設 및 建設事業을 마무리 지어 安定된 砲究零圍氣 造成에 힘쓰며, 先進管理技法의 導入으로 内部 變營의 合理化를 國家와 社會에 기여하는 研究所, 신뢰받는 研究所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 傾注할 覺悟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努力과 研究活動 結果가 結實을 맺기 위해서는 政府의 指導도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國內企業間의 技術開發競

爭보다 電氣·電子工業分野의 企業界와 研究所가 유기적인 協力体制를 구축하여 先進技術國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일이 急先務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研究所는 研究開發 結果를 企業界에 誠實히 전수하고, 企業界는 自体 技術開發 活動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出捐研究機關의

研究結果를 導入 吸收하여, 製品을 生産하고, 企業化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나라 全體의 限定된 研究投資와 研究能力을 가장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會員社 여러분의 積極的 聲援을 期待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電子産業 지원을 모색하는 情報科學會

조 정 완
韓國情報科學會 會長

작년 한해는 우리나라 情報科學界는 물론 情報産業界의 발전을 위한 도약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컴퓨터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컴퓨터 분야의 技術提高를 위하여 國策 및 특정 연구과제의 수행이 시작되었고, 情報産業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 및 민간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碩士 내지 碩士學位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정부나 기업, 그리고 학계가 다같이 80년대에는 컴퓨터와 이의 응용산업의 발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는 있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던 터에 비로서 작년에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들이 전개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보과학회에서도 작년에는 뜻깊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2회에 걸친 정기학술대회 이외에도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컴퓨터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써「컴퓨터를 보는 눈」과 국내의 정보산업의 현황을 평가하여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정보산업 리뷰」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또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제2회 학생논문 경진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작년에는 대학원부와 학부로 나누어 두개의 부문에서 시상을 하였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보과학 및 정보산업의 주역인 한국정보과학회는 직접적인 사업수행은 물론 기술인력의 재훈련이나 올바른 정책제안 등 간접적인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학회의 회장으로서 새해에는 이러한 사업을 강조하여 학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금년에 계획된 순수 학술활동은 연 4 회에 걸친 정보과학회 論文誌의 발간과 컴퓨터 사전의 편찬,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 학생논문 경진대회이다.

작년까지는 한국정보과학회지가 학술논문과 비학술적인 기사를 함께 다루어 왔는데 이것을 금년 부터는 분리하여 한국정보과학회지는 정보과학회 논문지로 개칭하여 발간하며 학술논문

만을 다루고 나머지 비학술적인 기사는 정보과학회지를 창간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정보과학회 논문지는 그동안 급속도로 발전하여 우리학회와 규모가 같은 다른 모든 학회들 보다는 그 발간회수나 논문내용으로 보아 체제가 올바르게 잡혀있다고 자부한다. 학회장으로서 금년도에 정보과학회 논문지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하는 것은 투고논문의 수적인 증가와 보다 넓은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컴퓨터사전의 편찬은 금년중에 수행할 중요한 사업의 하나다. 국문 컴퓨터 용어집도 없는 현시점에서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되나 중고등학교에서 전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에 마이크로 컴퓨터를 대량 공급하게 된 주위의 여건으로 보아 컴퓨터사전의 편찬계획은 정보과학회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전산학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전산기술자는 그 수가 아주 적은 수에 이른다. 따라서 80년대에 정보산업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실력있는 졸업생을 대량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정보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논문경진대회를 통하여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이미 계획안이 결정되었으나 후원회의 확대를 통하여 수상인원을 증가시키므로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순수 학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IFIP를 위시한 국제학술대회에 회원들의 참가를 적극 권장하며 협조하는 것과 해외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해당 학술분야의 회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또한 금년에 계획하는 사업이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비학술활동은 학회지의 창간과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의 수행, 그리고 행사로는 83년도 정보산업 리뷰와 아직 구체적인 제목은 설정되지 않았으나 제 2회 컴퓨터 심포지움이다.

학회지는 그동안 순수한 학술논문만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대중성의 기사를 아쉬워해 왔다. 따라서 금년에 창간되어 연4회 발간 예정인 정보과학회지는 최신정보, 기술보고서 강화, 산업계의 소식 등 보통의 회원들이 읽어서 유익한 기사를 다룰 예정이다.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컴퓨터의 생산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이용업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기술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직접적인 기술지원은 산업체에 직접 대학교수를 정보과학회 회원의 자격으로 파견하여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가능한한 산업체의 요청을 학회가 접수하여 수요에 적합한 교수를 학회가 추천하는 형식을 택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학회가 직접 산업체가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써 산업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이러한 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프로젝트를 수탁해온 회원에게 응당의 혜택을 부여하므로써 이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산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기술지원 사업으로는 夏季방학을 이용하여 전산학 분야의 여름학교를 설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재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과거에는 어느 특정한 산업체의 요청으로 그 회사의 사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는 모든 산업체에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 2회 컴퓨터 심포지움과 83년도 정보산업 리뷰는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을 중요한 행

*新春特輯 / '83年 各界의 새해 設計를 들어본다.

사로서 컴퓨터 심포지움은 이미 추진위원장이 결정되어 준비작업이 진행중이고 정보산업 리부는 작년 한해동안에 우리나라의 정보산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금년도의 행사는 상당히 흥미있는 행사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소개한 사업들은 금년도에 계획하는

최소한의 사업이며 이밖에도 수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의 저명한 학자나 기술자들을 활용하는 세미나와 워크샵이 있을 것이며 금년에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책적인 제안과 같은 대정부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電子産業에 부치는 新年提言

徐 壯 源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産業 3室長 經博

癸亥年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어제와 내일을 생각해 본다. 우리 나라의 電子産業은 1969年 電子工業振興法의 制定을 契機로 輸出戰略産業으로 指定, 育成됨으로서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70年代中 電子産業은 生産과 輸出에 있어 公히 年平均 35%가 넘는 高率成長을 이룩하였으며, 우리나라 總輸出의 13%가 넘는 纖維産業 다음가는 重要 輸出産業으로 浮上하였다. 過去 이같은 成長이 可能 했던 것은 우리 나라 電子産業이 풍부하고 값싼 良質의 人力을 活用하여 部品 및 製品의 組立生産 위주로 發展하였던 점과, 당시 安定된 輸出環境과 先進國의 經濟成長에 따른 海外需要의 增大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던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第2次 石油波動 이후 世界經濟는 지속되는 景氣沈滯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82年度 우리 나라 電子製品의 輸出은 類制없이 前年對比 1.6%나 줄어 들어 總生産의 60% 이상을 輸出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 電子業界의 심각한 不況을 反映해 주고 있다. '83年度 世界經濟는 最惡의 不況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것으로 期待 되지만 成長을 저해하는 構造的 不安要因

이 尚存하고 있어 平均 2~3%의 底成長에 머물 것으로 展望되며, 더우기 先進國들은 '83年中에도 10%를 넘는 失業率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電子産業의 海外市場 與件이 크게 好轉되리라 期待하기는 어렵다고 判斷된다. 더우기 不況에 따른 先進國들의 輸入規制 強化와 技術保護主義의 움직임, 그리고 後發開途國의 추격 등은 70年代 量的成長에 置重하여 技術開發이나 새로운 製品의 開發에 소홀 하였던 우리나라 電子製品의 國際競爭力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설혹 世界景氣가 回復된다 하더라도 過去와 같은 好況을 누릴 수 있으리라 期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國際市場에서 拔돋음하여 競爭하기 위하여는 克服해야 할 몇 가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技術開發의 問題이다. 電子製品이 가지는 가장 重要한 特性은 技術革新이 빠르다는 것과 技術開發에 따라 製品의 性能은 優秀해지는 反面 價格은 急速히 底下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電子製品에 관한 한 앞으로 國際市場에서 先進國型和 後進國型的 價格差別을 통

한 並存은 期待하기 힘들 것이며 技術을 가진 자만이 궁극적으로 競爭에서 生存하리라 보여진다. 美國電子業體의 약 90% 이상이 모여 있는 캘리포니아주 씨니·벨의 속칭 실리콘·벨리에서는 하루에만도 수백개의 企業이 서고 사라지는 戰爭을 방불케 하는 熾烈한 競爭이 일고 있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技術開發에 위해 가장 重要한 것은 技術開發에 대한 投資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技術開發投資는 過去 電子製品 總賣出額의 약 1.3% 程度로서 先進國의 7% 이상에 비하면 매우 낮은 水準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外國의 경우 컴퓨터나 半導體와 같은 소위 尖端技術製品의 開發을 위하여는 賣出額의 10% 이상을 投資하고 있어 그 賣出額의 규모를 감안하면 실로 막대한 金額을 技術開發 投資에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余力이 그만한 投資를 감당할 수 없는 現實도 事實이나 긴 안목에서 볼때 아픈 것을 참는 노력이 필요한 時期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電子産業의 工業構造와 企業의 生産基盤이 취약함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서도 言及했듯이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勞動集約的인 部品과 家庭用棧器 中心의 組立工程 위주로 發展하여 輸入 依存도가 높을뿐 아니라 製品의 附加價値率이 낮다. 過去 國產化 推進으로 輸入 依存率은 낮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電子産業 전체로 輸入 依存도가 近 50%에 이르고 있으며, 從業員 1人당 附加價値 生産額은 日本과 比較할 때 8분의 1에 미달하는 實情이다. 더욱 뚜렷한 취약점은 企業 規模의 零細性에 있다. 우리나라의 電子企業은 輸出을 위주로 한 棧器組立의 몇개 大企業을 제외 하고는 95% 이상이 中小企業으로서 그 規模가 國際市場에서 競爭하기에는 너무 영세한 실정이다. 이들 95% 이상의 中小企業들이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35% 미만이며 全體的으로 平均 1個社當 賣出額은 日本의 15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自立基盤이 弱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長期的으로 電子産業

이 高附加價値를 生産하고 自立基盤위에 서기 위하여는 技術開發을 통한 工業構造의 移行과 함께 合理的인 生産工程의 管理와 施設改替를 誘導하기 위한 投資가 시급하다고 본다. 점차 産業社會가 高度化 됨에 따라 電子製品의 應用範圍가 多樣한 形態로 産業에 擴大되고 있으며, 高度의 技術集約製品의 需要가 增大하고 있음을 注視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리라 믿는다. 또한 生産性 向上과 規模의 經濟 達成을 위하여는 分離 혹은 合併을 통한 自律的인 企業 調整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專門化, 系列化를 통하여 實效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는 貿易構造의 問題이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은 大宗을 이루고 있는 家庭用棧器의 경우 生産의 약 80% 이상을 輸出에 依存하고 있어 海外景氣와 市場 變化에서 오는 外部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더욱 큰 構造的인 問題點은 輸出入先이 과도하게 美國과 日本에 備重되어 있다는 점이다. 電子製品 輸出對象國 115個國과 美國과 日本에 대한 輸出依存도는 60%나 되며 輸出部品の 85% 이상을 이들 두 나라에 依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를 특정國의 市場與件 變化나 輸出入政策의 變化에 크게 취약한 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높아만 가는 先進國의 輸入規制와 技術保護主義 장벽을 打開하기 위하여는 보다 積極적인 輸出市場의 多邊化와 國產部 品開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믿는다. 한편 海外市場의 變化에서 오는 外部충격을 완화하고 製品의 改良 및 開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輸出 못지 않게 內需基盤을 擴大하는 것도 重要하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技術水準에서 國內市場의 擴大 없이는 向後 海外市場의 進出에 斷層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內需市場의 擴大를 위하여는 現行 特消稅制의 改善 檢討와 아울러 信用販賣制度의 確立 등으로 潛在 需要를 有效 需要化하는 노력이 우선 先行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電子製品의 生活化를 위한 분위기

가 造成 되어야 한다. 장래 電子時代에 대비한 技術人力의 양성은 물론 電子産業의 重要性에 대한 國民的 인식의 필요 하다고 본다. 外國에서는 이미 컴퓨터의 사용이 教育過程에서 擴大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常生活에서 대중화 되어 가고 있다. 우리도 그 같이 國民底邊의 思考

의 變換이 電子製品 자체의 技術革新 못지 않게 앞으로의 國力을 가름하는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동안 무성했던 이야기들처럼 정말 電子産業이 우리나라의 未來의 戰略産業으로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協同組合의 도약을 기하는 新年度 事業

高明哲

韓國電子工業協同組合 理事長

지난해는 三年余에 걸친 世界的 不況이 걸릴 줄 모른채 우리 電子工業의 基盤인 輸出이 前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었고 內需에서도 컬러TV의 價格引下 波動이 誘發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해를 보냈습니다. 實로 우리 모두가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 新春벽두에 갖게되는 새로운 의미로 感懷가 깊습니다.

특히 中小企業의 比重이 그 어느 分野보다도 크고 그 機能과 役割이 絶對的인 電子工業의 경우 지난 한해를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웠던 期間이었고 이에 따라 新製品·新技術開發을 비롯, 業界 運命共同體 意識이 싹트는 등 自救策의 摸索과 새로운 活路를 찾아 대부분의 中小企業은 고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는 그동안 刻苦의 어려움 속에서 터득한 經驗과 叡智로서 때마침 새해와 함께 비치기 始作한 世界經濟의 好轉 氣運에 편승하여 積極的인 解決策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릇 電子工業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關聯産業과 함께 部品, 素材 등 中小企業 分野의 確立 없이는 不可能할 뿐 아니라 특히 어느 水準

을 넘어서서 보다 飛躍하기 위해서는 龐大한 關聯 中小企業群의 基盤構築 없이는 어려운 것이 事實입니다. 이때문에 「中小企業 없이 電子工業 없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事實을 否認할 때에는 韓國銀行의 産業關聯表 分析에 나타나는 것처럼 相互 寄與하는 側面이 매우 極少한 뿌리없는 産業이 招來케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大企業의 機能이나 役割이 重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大企業을 밑받침하는 中小企業群 없이는 大企業의 發展도 持續的일 수 없으며 급기야 모두 상처를 받게되는 結果밖에 올 것이 없으므로 中小企業의 均衡 發展이 相對的으로 더 重要하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政府에서도 이와 같은 事實을 깊이 認識하시고 지난해에는 中小企業 製品購買促進法을 비롯 여러 中小企業 關聯法規의 整備와 中小企業 系列化 및 公正去來制度의 弘化, 協同組合에 대한 輸出入業許可 등 操置를 하여 주었고 이에 발맞추어 當 組合도 體制를 強化하는 한편 지난해말 國內初有의 電子製品常設共同展示販賣場을 開設하고 附帶事業을 開發하므로써 業界를 위하여 實質的인 寄與를 할 수 있는 차비를 갖추고, 이

를 바탕으로하여 올해에는 電子分野 中小企業들이 相對的으로 취약하였던 여러가지 點을 부추기고 國內活動은 물론 海外活動까지 支援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覺悟이며, 當 組合會員社與否를 不問하고 우리 모든 電子工業人은 母企業과 系列企業, 機器와 部品, 部品과 素材 共히 犧牲精神과 信賴를 바탕으로 相互協同 團結로 汗해를 보내기를 바라며 本組合의 새로운 事業 몇가지를 紛介코자 합니다.

□ 展示販賣場 開設活用

當 組合은 지난해 12月 22日 서울 農協支所에 事業所를 移轉함과 同時에 50坪 規模의 常設 展示販賣場을 開設, 國內 購買者는 물론, 海外바이어들이 언제나 우리 商品을 한눈에 보고 購買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70개 業體에서 4백種, 2천여점이 展示·販賣되고 있으며, 하루 40~50名이 내방하고 있어 中小企業製品 去來 活性化에 寄與하고 있습니다.

□ 輸出入 業務 지원, 輸出市場 擴大

지자체 11月 29日 서울特別市 第829700號 로 輸出入 許可를 받아 多品種 少買의 海外需要를 效率的으로 吸收하여 輸出市場 擴大에 이바지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附帶코스 등 여러 問題로 輸出入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組合員들의 企業活動을 지원, 中小企業의 輸出産業化를 促進하게 되었습니다.

□ TELEX 會員制 運營

當 組合은 텔렉스(K 27664 ROKEIC)를 開設 組合員 業體 중 海外 通信 수단이 미약한 業體에게 共同 使用케 하므로써 組合의 海外 通信機能 강화는 물론 組合員 業體에게도 서어비스를 強化하고 있습니다.

□ 國內外 去來 情報網 構築

展示販賣場 開設과 함께 海外 68개국 1千여

바이어와 連結, 去來情報網을 構築하였고 86個 國 駐在 KOTRA 貿易館과 國內 139개 觀光호텔에 組合事業 案内 및 製品情報를 常時 備置, 우리 나라 電子製品에 관심이 있는 모든 海外바이어들을 組合 共同 展示販賣場으로 連結되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海外活動 強化

이와 같은 海外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活性化하여 市場 擴大을 이루고자 春秋 2回 以上の 定期的인 海外세일즈, 展示·調査團을 파견하고 뉴욕 시카고·LA 및 프랑크푸르트와 나이제리아 등에 海外 備蓄販賣 거점을 年次的으로 構築해 나가는 한편 '86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에 대비, 電子製品 專門 外國人 免稅販賣場 開設도 推進할 계획입니다.

□ 団体意契約 등 共同販賣 擴大

展示 販賣場을 통한 少量去來 促進 以外에도 電子製品의 國內需要 活性化를 위하여 當 組合은 団体 隨意契約 對象品目を '82年의 11個品目에서 21個品目으로 늘려 指定을 받음으로써 組合員 生産製品의 市場擴大에 寄與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올해부터는 部品分野의 官納과 大量需要와의 隨意契約이 可能케 되므로써 流通秩序 確立으로 組合員 權益을 擴大할 수 있게 되고 이밖에 組合의 主要事業이던 原資材 共同購買 事業을 더욱 堅實하게 擴大하여 組合員 生産活動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國民들의 電子工業에 대한 認識 提高와 國產製品에 對한 信賴性 提高를 위하여 各級 學生과 觀心있는 社會人을 대상으로 電子製品 組立競進大會의 定期 開催도 올해부터 始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新規事業의 展開과 並行하여 從前 當 組合이 꾸준히 계속하여온 各種 政策 業務도 성실하고 合理的으로 遂行해 나갈뿐 아니라 變遷하는 企業環境에 앞서서 業界 隘路 打開에도 앞장설 것입니다.